

다변량분석에 의한 예술작품 분류 시도 연구
- 전문가를 중심으로 -

서명애 · 이상복
서경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Study on New Classification Indication about Work of Art
through Multi-variate Data Analysis
-On Focused Specialist -

Suh, Myungae · Ree, Sangbok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ABSTRACT

Evaluation of the work of art with intention of the artist different is not a possibility of free oneself from the limit which estimates an evaluation at value of appreciator. We tried new interpreting about the work of art in this paper. The work of art respects the intention of the artist to make it and interprets intention until now. After critics distinguish by a period, an area that they set to philosophical thought which is the time and interpreted. We set to each one subjectivity and interpreted between artist to make the work of art and appreciator. But in this paper, we tied various criteria which appreciates the work of art. We tried so that we presented the intimacy each other newly. Otherwise we tied with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and are the try to be an objectification low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 We looked into the culture and art in the introduction and explain the discussion about the work of art interpreting which the main subject. We set the category 6 area, and explain an each criteria explanation and assessment method. We tried to propose new interpreting as the intimacy to be multivariate data analysis result of the assessment analysis. Stopping from the thing which sees the work of art knows, it will be able to give meaning thing from this research prerequisite.

제1장 서론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시·공간적 의미는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가 인간

의 가치관 형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형태를 구성 짓고 문화적 역량이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결정하며 과학과 예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이 경제에서 문화로 옮겨지면서 문화가 가장 결정적인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한 국가의 모든 분야에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이 이러한 중심에는 '예술'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의 예술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해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창조 활동 및 그 산물이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으나 예술이란 감각적 지각에 의한 형식상의 여러 관계의 통일이라는 것으로, 크로체(Croce, Benedetto)는 '예술은 직관'이라 하였고, 수잔 K. 랭거(Susan K. Langer)는 예술로서의 형식은 감정이 참여하는 추상적인 작용에 의해 성취된다고 강조한다. 즉, 예술이란 개념은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예술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있지만 그것은 매우 가변적이다.

하이데거(Heidegger, M)는 "사물의 본질에서 예술의 본질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술작품에 의해 처음으로 사물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예술이란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논의로 정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유기적 산물인 것으로서, 표면적 형상보다는 그 예술이 갖고 있는 내용과 작가의 관념에서 부여되는 의미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활동 중에 사물의 창조와 같은 특수한 활동을 지시하는 개념이며, 과학이나 도덕과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의 활동으로서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예술은 감상자에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예술작품은 작가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철학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조건 하에서 작가들이 묘사하는 삶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의미적 추구작업이며, 결과물인 예술작품은 의미를 갖게 되고,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은 예술가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체가 된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평가는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감상자(鑑賞者) 자신의 가치로 평가를 내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한 시대의 예술 영역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예술의 소재 또한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은 때로는 천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아무리 많은 말로 묘사한다 해도 예술작품에 내재한 이미지나 대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미술평론가 존 러스킨(John Ruskin)은 예술작품(회화)을 설명하면서 “회화의 시적 등가물”(Quen Bell, Ruskin, New York, 1978, p.29)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언어와 이미지의 단일한 결합체에 근접했고, 19세기에 미술사(美術史)가 정립된 이후 예술작품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 되거나 ‘읽혀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예술작품은 그 시대의 문화 즉, 시간과 장소와 예술가의 표현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의 매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다. 해석의 방법론들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로서 여러 층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제1절 문제제기

지금까지의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한 언급은 작품의 기술(記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20세기의 예술작품인 특히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 같은 형식주의적인 비대상 계열의 작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이 무력해졌다. 이에 작품이라고 그려진 의미 속에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즉, 예술작품에서의 작가와 감상자 간의 의미 조절 기능과 메시지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는 예술작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이 논문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작품이 보여주는 것과 의미하는 것은 일치 하지 않는다.

둘째, 작품의 의미 생산방식과 그 해석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와 감상자 간의 의미 및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객관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이 논문은 예술작품을 총체적인 느낌으로의 감상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6개의 범주로 나누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예술작품이 우리의

일상에 보다 가깝게 정보 전달의 매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시도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작품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떤 예술작품이 읽혀질 수 있는 대상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범주 내의 의미적인 요소들의 총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예술은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활동 가운데 사물의 창조와 같은 특수한 활동을 지시하는 개념이며, 과학이나 도덕과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의 활동으로서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라는 단어는 개념적인 것으로 시대와 민족에 따라 다르며, 동일 시대나 동일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파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예술이란 무엇이며, 예술작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술이란 분명 ‘표현형식’ 즉,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상(假象)의 형식을 창조한다. 예술작품의 평가는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감상자(鑑賞者) 자신의 가치로 평가를 내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한 시대의 예술 영역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예술의 소재 또한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예술작품은 작가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철학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조건 하에서 작가들 개인이 꾸려나가는 삶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의미 추구작업이며, 결과물인 예술작품은 의미를 갖게 되고,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그 형식은 예술가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체가 된다. 예술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의미 소통을 위한 개인적인 창조물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이 의미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작가는 새로운 사고(思考)들의 시각적 가능성을 표현하고 중시해야 한다. 작가는 이미지(image)를 생산하는 발화자(發火者)로서 자신의 작품을 해석하는 감상자들의 가능한 여러 가지 판단의 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작품형식의 구조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작품에 보다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연구로는 회화작품 20개 작품을 시대별로 선정하여, 범주를 6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예술작품이 지니는 특성을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여 범주별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이 논문은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을 다변량

해석방법으로 6가지 범주 기준으로써 작품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예술작품에 대해 감상자에게 인지되는 객관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20개의 예술작품들 간의 유사성(resemblance)이나 거리에 의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체들을 6개의 범주로 집단화하여 작품들 간의 상사성(similarity) 또는 거리에 의해 군집을 형성하고 형성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기 다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의해 동질성을 지닌 범주로서 감상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역의 동질성을 찾아내어 해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범주들 간의 연관관계를 찾아내고 개념상 의미를 부여하고 객관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II장 본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여 작가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비평가들은 시대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시대적인 철학적 사상에 맞추어 해석하였다. 즉, 예술작품을 만든 작가와 감상자 간에 각자의 주관에 맞추어 해석을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범주를 묶어서 서로의 분류를 새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시대순 혹은 지역 간의 2차원적인 평가였다면, 이번 연구는 다양한 차원 즉 범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하여 개인의 주관을 묶어서 객관화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문화와 예술을 살펴보고, 다음에 예술작품 해석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고, 6개 범주를 설정하여 각 범주별 설명과 평가 방법을 설명하였다. 감상자들이 예술작품을 평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 기법인 친밀도 분석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였다.

제1절 이론적 배경

예술작품은 작가의 의식세계를 표현한 것으로서 수용자인 감상자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와,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한 자율적 언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또한, 작가가 작품에 표현한 의미가 감상자에게 전달 가능하다면 그 작품은 의사소통적 의미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즉, 회화는 예술작품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며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작품 내에 공존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전달수단 중의 하나로 서로 간에 소통을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예술작품을 자연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이념의 모방으로서 현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술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예술의 본질적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에서 의미 전달 활동은 '해석'의 변환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예술작품의 해석

2.1 예술에 대한 정의

예술은 자연에 대립하여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형식'을 만드는 하나의 시도로 정의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대와 감상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가변적인 기준이다.

고대에서 예술 개념은 자연을 모방하는 일종의 테크닉(technic, 기술)이었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러 예술은 자율성을 가진 표현형식으로 인간 감정을 시각, 청각, 상상력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술에 대한 정의

학 자	정 의 내 용
플라톤	미의 이데아, 즉 절대미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이성적인 선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으로써 도덕에 의거한 미와 예술을 주장함.
아리스토텔레스	도덕적,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해 관객에게 이성의 힘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연민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봄.
칸트	미적인 영역 또는 예술 영역이 도덕이나 학문을 떠나서 그 어떤 것에도 봉사하지 않는 보편성을 띤 독자적인 영역임을 입증함.
헤겔	'미학'을 통해 예술미를 자연미보다 우월한 것으로 정립하고, 예술의 목적이 결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고 정의함.

2.2 예술 표현 형식

예술은 감정의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표출로 보는 관점에서, 예술은 일정한 가치에 관계된 의미의 정신적인 존재로서 문화의 특수한 영역의 일부분이며, 일정한 이념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 가치창조의 한 형식이다. 그렇지만 문화와는 달리 예술은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술은 그 시대의 집합적인 의미체계와 정서구조 및 시대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고 표출해주는 매개체가 되며, 한 사회의 문화가 생성 → 수용 → 전승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박명규, 1995: 468. 정광열, 1997: 13).

그러므로 예술이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으로 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그의 예술을 담은 것을 예술작품이라

고 한다. 예술작품 속에서 예술은 주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보편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기술인 동시에 지적활동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이란 사물적 측면을 넘어서는 제작된 사물 이상의 어떤 것 즉, 알레고리(Allegorie)와 상징(Symbol)을 포함한다. 즉, 예술은 개성이 그 본질적 요소를 이룸으로써 개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표현을 실현한 것이 뛰어난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2.3 예술작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예술작품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은 작품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과의 관련 등과 같은 보다 다각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나타난다.

오웬스(Crag Owens)는 예술작품이란 다양한 관점과 맥락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진 텍스트이며, 감상자들에게 다양한 많은 읽기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Allegorical Impulse: Toward Postmodernism": pp.179, 현대미술학 논문집, 2001)

하르트만(Hartmann, Karl Robert Eduard von)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객관화한 정신, 즉, 작가의 '살아 있는 정신'에서 빠져 나간 내용이 물질 속에 들어가 하나의 대상이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물질적 바탕'과 '정신적 내용'의 두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현상관계'에 있다. 즉, 물질적 바탕에서 정신적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진중권, 1997: 105).

윌플린(Heinrich Wölfflin)은 예술작품 해석에 대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의 변화를 시형식(視形式, Seh-form)의 변화, 즉 사물을 보는 눈의 변화로 설명했다.

헤겔(George W. F. Hegel)에 있어서의 예술은 진리가 감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진리는 예술작품 속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고전주의적 예술관으로 함축할 수 있으며, 수용자는 작품이 던져주는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예술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읽어내는 일, 섬세한 차이를 지각하고 구별하는 일은 심미적 경험에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예술은 삶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이러한 과정은 훈련이 필요하다.

예술작품을 선호하는 결정적 요인에 대해 엘렌 위너(Ellen Winner)는 복잡한 예술작품은 새로운 도전을 주고, 호기심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2.4 예술작품에 대한 시대별 구분

서양 미술사를 기준으로 인류가 예술작품을 일상생활에서 감상으로서의 대상이 된 역사는 오래지 않다. 그 대상이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표현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의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 각각의 사조마다 예술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고뇌로 새로운 창작의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시대적 구분을 한다.

- 1) 원시예술 2) 고대예술 3) 중세예술
- 4) 19세기 예술 5) 20세기 근현대예술

제III장 예술작품의 범주설정

지금까지 예술작품 해석은 객관적으로는 작가가 활동한 시대별이나 작가의 출생지에 의한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왔다. 또한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주관에 의하여 해석하나 감상자의 가치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예술품을 보는 시각적 관점(형식, 의미) 등에 따라서 작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예술작품 해석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예술작품을 보는 다양한 관점(범주)들을 선택하여, 한 작품을 여러 감상자들이 다양한 범주로 동시에 평가하며 다양한 범주가 다양한 감상자들과 조합하여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작품들 간의 친밀성을 찾고자 한다. 친밀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된 예술작품들을 감상자가 선정된 범주별로 점수를 주어야 한다. 각 범주 간 점수는 5점 척도로 나누고 감상자는 자신이 판단한 점수를 주며, 다변량변수 해석의 일종인 크러스터링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친밀도로 작품을 새롭게 묶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예술작품 해석을 객관화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감상자가 다양한 범주로 동시에 평가하여 친밀도가 높은 순으로 예술품을 묶었을 때, 시대를 뛰어넘어 묶인다면 예술가의 다차원적 입장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비슷한 부류의 가치관을 갖는 예술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또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새로운 예술품 생성에 기여하는 여지가 있다.

제1절 예술작품 해석 범주 선정

1.1 예술작품의 정의

예술이란 정의하기 어렵지만, 미(美)와 마찬가지로 감상자의 시각에 달려 있는 것으로, 어떤 대상이나 이미지이다. 플라톤(Platon)은 예술을 미메시스(mimesis, 모방)와 테크네(techne) 또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미술)을 '본질의' 복제로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사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 형태와 재료와 제작자와 만든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듯이 예술작품도 인간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담고 표현하는 것이어서 가치 평가를 내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능한 한 배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작품 구분을 위한 범주로 미의 형식, 주관성, 객관성, 상징성, 미적정보, 의미정보 등의 6개 범주로 나누었다.

제2절 6개 범주에 대한 설명

예술작품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형식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루는 형식에 의해 그 의미들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에 따라 읽혀진다.

예술을 감상함에 있어 작품의 기원이나 작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사회적·역사적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 등을 통일하고 예술적 기능에 대해 복합성을 설명한 모이세이 카간(Moisej Kagan)은 예술이 인간의 모든 경험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은 통일과 복합적 기능의 소산으로 간주한다.(현대미술학 논문집99. P22)

2.1 미(美)의 형식(form)

예술적 미의 형식이란 우리의 직접적, 감각적, 정신적, 정서적 생활이 나타내는 형식에 합치한 것이다. 비어드슬리(Monroe Beardsley)의 미적 대상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보편적 아름다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각 통일, 복잡성, 강도(強度) 등을 내세웠다. 예술가는 특정한 관점이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료에 어떤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형태를 창조해낸다. 시대가 다름에 따라 사람들은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따라서 선택된 주제는 내용과 더불어 양식을 형성하는 특징들이 합해진 것의 일부가 된다. 형식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결국 표현적이다.(전경수, 미술품분석, p85-86)

형식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스타일(style) 즉, 형식 창조 방식으로서의 작품으로 드러난다. 예술가는 이러한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혼적으로 작품 속에 존재하게 된다. 즉, 예술작품은 주제나 테마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작품이 형성되는 독특하고 개인적인 방식에서 예술가의 전체적인 개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예술작품 내용은 작품 자체의 창조자인 동시에 작품의 형식이기도 하다. 형식은 '구성'과 '표현 수단'으로 이루어져 좋은 예술작품이란 내용과 형식의 조화에 있다. 주광첸(Zhuguangqian)은 "예술 작품은 내용에 진선미를 포함하여 인간의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인간의 '속된 기운'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형식과 내용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 감상자가 예술품을 보았을 때 미의 형식미가 완벽하면 5점, 형식미가 없다고 보면 1점을 준다.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2.2 주관성

어떤 것을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대상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대상과 미적 향유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미적 경험을 하는 동안에 느낀 것이 가치평가의 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과 객관은 항상 직접, 간접으로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예술을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핵심인 미적인 것, 즉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2.3 객관성

가치를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작품의 성질이 다른 어떤 대상의 존재와 관계없이 독립해서 그 대상 속에 존재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을 '그 자체로' 판단함을 말한다. 니이체에 의하면 객관성이란 '최고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해관계를 떠난 사유가 아니라, 이들을 잘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하였다. 즉, 주관성이 아닌 것이 객관성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서 1~5점 사이의 중간 점수를 준다.

2.4 상징적 표현성

작품에 대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상징적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가의 여부에 관한 검증은 시도해 보고자 함에 목표를 둔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서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2.5 미적(美的) 정보

미국 수학자 버코프는 '미의 척도'를 재는 공식을 만들었다.

$$M = O/C \quad [M:미의 척도(aesthetic measure) \\ O:질서(order), C:복잡성(complexity)]$$

즉, 미란 질서(예측가능성 =네그엔트로피)와 복잡성(예측불가능성 =엔트로피)의 함수라는 것으로, 예측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적절한 비례를 이룰 때, 사물 혹은 예술은 가장 아름답다는 이론이다. 미적정보는 수학자 버코프의 공식에서 '복잡성'에 해당하며, '의미정보'는 '질서'에 해당한다. 작품을 참신하게 하려고 엔트로피를 늘리는 것은 작품이 복잡성 속에서도 질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적 성질로, 미의 본질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은 삶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예술작품 또한 미적 즐거움과 보는 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톨스토이는 '미(美)'란 즐겁고 유쾌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예술적 뛰어난 척도는 '감화의 정도'라고 했을 정도로 미적 감각과 정보의 소통으로서 감정들은 외적인 기호를 통해서 표현

된다고 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규합해서 구조화된 전체를 이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며 생산된 미적 기호는 일종의 정보(의미)적 가치를 지닌다. 모든 작품은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 예술작품 역시 미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계이다. 현대예술에서는 의미정보를 단순화하는 가운데 미적 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2.6 의미 정보

예술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행위의 범위의 예술로서 예술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평가된다. 즉, 예술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읽어내는 일, 섬세한 차이를 지각하고 나아가 구별하는 일은 심미적 경험에 즐거움을 주는 의미를 뜻한다. 의미정보를 중요시한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대상의 형태가 가장 중요했다. 인간에게 미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기쁨을 주는 의미적 정보로서의 역할을 찾으려 작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알아본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서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이상과 같이 정한 6개 범주와 점수구분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6개 범주와 점수 구분(5점척도)

범주	소극적 의미	점수	적극적 의미
1.미의 형식	전혀 형식이 없다	1 2 3 4 5	완벽한 형식이다
2.주관성	주관성이 없다	1 2 3 4 5	주관성이 많다
3.객관성	객관성이 없다	1 2 3 4 5	객관성이 많다
4.상징적 표현성	상징성이 없다	1 2 3 4 5	상징성이 많다
5.미적정보	미적정보 없다	1 2 3 4 5	미적정보 많다
6.의미정보	의미정보 없다	1 2 3 4 5	의미정보 많다

제 IV 장 예술작품 새로운 해석 실험

제1절 작품 선정

3장에서 선정한 범주에 맞추어서, 분석할 예술작품으로 <표 3>과 같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회화작품 대표작 20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급변 평가에 사용될 예술작품은 시대별로 선정한 작품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은

비교적 잘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은 서양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3> 20개 예술작품

	작가	작품명	시대
1	BC 20,000경	알타미라 동굴벽화	원시시대 (선사 고대)
2	BC 3세기 ~AD 1세기	라오콘 군상	그리스 헬레니즘
3	다빈치	모나리자	르네상스
4	루벤스	파리의 심판	중세바로크 (1600-1750)
5	렘브란트	야경	
6	다비드	나폴레옹 대관식	신고전주의 (18C말-19초)
7	앵그르	오달리스크	
8	컨스터블	건초마차	자연주의
9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낭만주의
10	마네	풀밭 위의 식사	인상주의
11	모네	수련	
12	세잔느	정물	후기 인상주의
13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인상주의
14	밀레	이삭 줍기	사실주의
15	몽크	절규	상징주의
16	마티스	붉은 식탁	야수파
17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Cubism
18	달리	Persistence of Memory	초현실주의
19	워홀	마르린 먼로	Pop Art
20	몬드리안	적 청 황의 구성	미니멀리즘

제2절 감상자 선정 및 작품 점수

이 논문에서는 예술(미술)을 전공한 전문가 51명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주관적으로 점수를 채점하게 하였다. 이들 각자가 채점한 점수로 아래와 같이 각 작품별 감상자들이 채점한 범주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표 4>와 같이 얻었다.

<표 4> 감상자들의 작품에 대한 점수

범주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	작품5
미의형식	1.14	3.58	3.79	4.16	3.05
주관성	3.02	3.22	3.16	3.84	3.25
객관성	1.88	2.53	2.61	2.37	2.84
상징성	3.43	3.69	3.22	4.12	3.88

미적정보	1.57	3.18	3.29	(3.69)	2.86
의미정보	3.06	3.35	2.59	3.90	3.63
범주	작품6	작품7	작품8	작품9	작품10
미의형식	3.26	(4.21)	3.42	3.11	2.86
주관성	2.24	3.10	2.12	4.00	3.47
객관성	3.57	2.67	3.37	2.04	2.02
상징성	4.04	3.84	2.98	(4.37)	3.51
미적정보	2.96	(3.35)	(3.43)	3.35	2.92
의미정보	(4.08)	2.96	2.82	(4.12)	3.16
범주	작품11	작품12	작품13	작품14	작품15
미의형식	3.14	3.03	2.48	3.24	1.28
주관성	1.96	2.10	(4.16)	1.90	(4.49)
객관성	(3.59)	(3.65)	1.94	(3.75)	1.63
상징성	2.78	2.35	(4.18)	3.35	4.22
미적정보	3.02	2.53	2.33	2.71	1.94
의미정보	2.65	2.71	3.53	3.42	(3.92)
범주	작품16	작품17	작품18	작품19	작품20
미의형식	2.03	2.86	1.86	2.66	1.83
주관성	3.10	4.04	(4.08)	1.94	3.43
객관성	2.10	1.90	1.73	3.18	2.10
상징성	2.51	3.45	4.10	2.39	2.43
미적정보	2.27	3.27	2.29	2.04	2.10
의미정보	2.40	3.34	3.98	2.46	2.50

위의 표와 같이 감상자들의 설문지를 산술 평균 결과만으로 6개 범주에 대한 높은 순으로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의 형식' 범주에서는 [작품 7 : 앵그르, 오달리스크]⇒[작품 4 : 루벤스, 파리의 심판]⇒[작품 3 : 다빈치, 모나리자]가 높은 순으로 평균점이 나왔다.
- 2) '주관성' 범주에서는 [작품 15 : 뭉크, 절규]⇒[작품 13 ; 고희, 별이 빛나는 밤]⇒[작품 18 : 달리, Persistence of Memory]의 순서로 작품을 한 눈에 보아서도 작가의 주관성과 목적성이 뚜렷한 결과로 평가된다.
- 3) '객관성' 범주에서는 [작품 14 : 밀레, 이삭줍기]⇒[작품 12 : 세잔느, 정물]⇒[작품 11 : 모네, 수련]의 순서로 객관적인 평가이다.
- 4) '상징성' 범주에서는 [작품9 : 들라크루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작품 13 : 고희, 별이 빛나는 밤]⇒[작품 4 : 루벤스, 파리의 심판]으로 작품의 상징성 표현에서도 상당히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적절한 결과이다.
- 5) '미적 정보' 범주에서는 [작품 4 : 루벤스, 파리의 심판]⇒[작품 8 : 컨스터블, 건초 마차]⇒[작품 7 : 앵그르, 오달리스크]의 순서

로 도출이 되었는데 이 역시 미적 정보에서도 감상자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되었다.

- 6) '의미 정보' 범주에서는 [작품 9 :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작품 6 : 다비드, 나폴레옹 대관식]⇒[작품 15 : 뭉크, 절규]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이 나왔는데 이 역시도 비교적 정확한 의미 정보 전달로서의 역할을 지시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통계 분석

위의 데이터를 미니탭에서 다변량분석 변수 군집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 군집 변수는 다양한 범주의 다양한 의견을 통계적으로 군집 혹은 분류(clustering 혹은 classification)하는 방법이다. 작업은 미니탭(MINITAB 15 ver.)을 이용하였다.

3.1 친밀도 분석

친밀도중 거리 수준은 집단 간 거리로 거리가 작은 집단끼리 먼저 묶는다. 군집 단계 1에서 작품 16과 작품 20이 먼저 묶였다. 이는 작품 16(마티스의 붉은 식탁)과 작품 20(몬드리안의 적청황의 구성)이 6개 범주를 동시에 평가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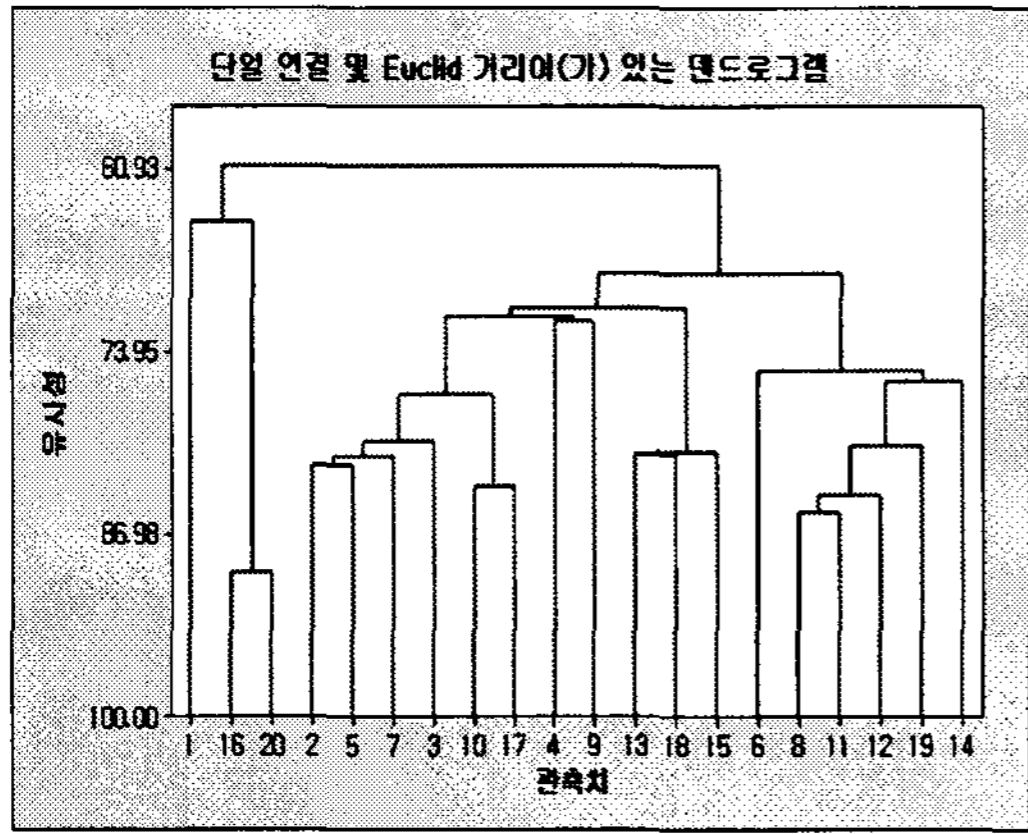
다음 단계에선 작품 8과 작품 12가 묶였다. 그 다음 단계에선 작품 10과 작품 17이 한 그룹으로 묶였다. 이와 같은 식으로 모두 묶일 때까지 진행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덴드로그램으로 그렸다.

- 1) 유클리디안 거리로 친밀도가 높은 작품을 묶어가는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합병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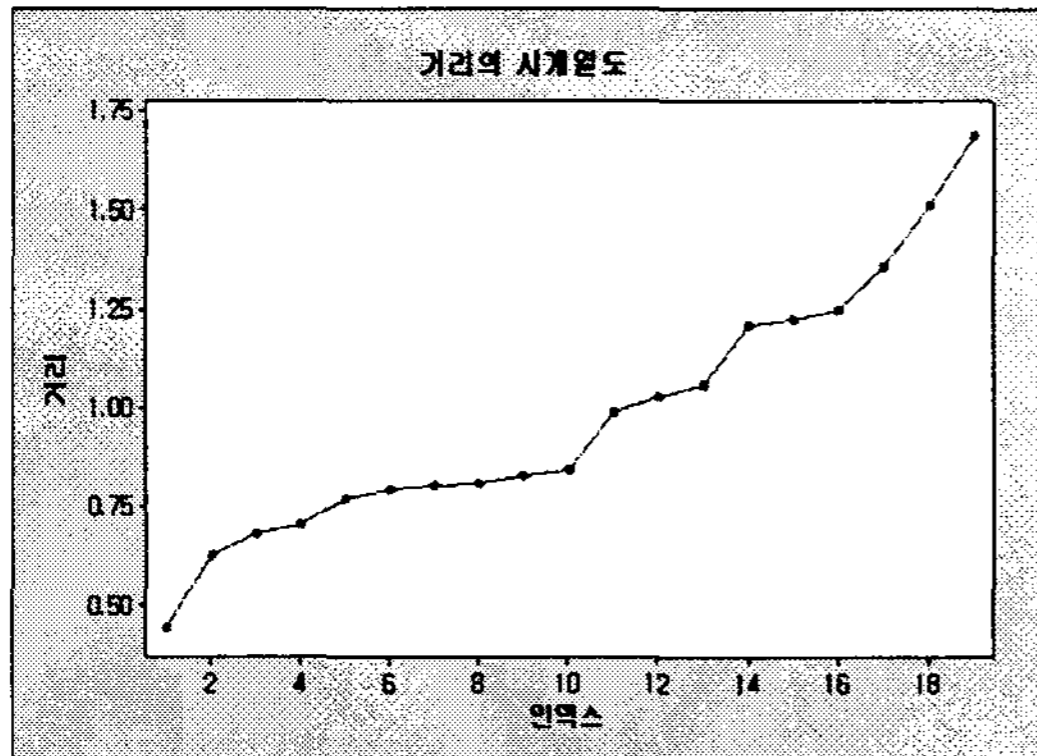
단계	군집 수	유사성수준	거리 수준	결합된 군집		새 군집의 관측수
				1	2	
1	19	89.7696	0.44068	16	20	2
2	18	85.5134	0.62402	8	11	2
3	17	84.1882	0.68110	8	12	3
4	16	83.6206	0.70555	10	17	2
5	15	82.0958	0.77123	2	5	2
6	14	81.5094	0.79649	2	7	3
7	13	81.3498	0.80337	13	18	2
8	12	81.2116	0.80932	13	15	3
9	11	80.7497	0.82922	8	19	4
10	10	80.4593	0.84172	2	3	4
11	9	77.0523	0.98848	2	10	6
12	8	76.1766	1.02621	8	14	5
13	7	75.4030	1.05953	6	8	6
14	6	71.9156	1.20975	4	9	2
15	5	71.6254	1.22225	2	4	8
16	4	70.9970	1.24932	2	13	11
17	3	68.5507	1.35470	2	6	17
18	2	64.8915	1.51232	1	16	3
19	1	60.9304	1.68294	1	2	20

2) 친밀도를 그린 덴드로그램을 그리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그려진다.



<그림 1> 친밀도 덴드로그램

3) 군집 단계 중 거리 수준을 군집 단계순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추이도와 같이 그려진다. 아래 그림을 보면 군집수 2에서 그리고 군집수 11에서 큰 폭으로 커진다.



<그림 2> 거리대 단계 산점도

3.2 통계적 분석 후의 새로운 해석

그림 2를 보았을 때, 2단계와 11단계 및 14단계에서 거리가 멀어졌다. 이는 처음 2단계까지와 그 다음 10단계까지, 또 13단계에서 그룹핑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높은 것을 묶는 것으로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친밀도가 높은 5개 그룹으로 묶어 해석해 본다.

(1) 가장 친밀도가 높은 그룹 1은 [작품 16, 20 : 마티스(붉은 식탁), 몬드리안(적청황의 구성)]이다. 2작품이 6개 범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친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현대작품으로 동시대적인 공통점이 있으나, 작품 간의 공통점은 쉽게 찾을 수가 없고, 미의 형식보다는 주관성·상징성이 뚜렷하다.

- (2) 다음으로 친밀도가 높은 그룹 2는 [작품 8, 11, 12 : 컨스터블 (건초 마차), 모네(수련), 세잔느(정물)]가 묶였다. 19세기의 자연주의에서 후기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동시대적인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3) 다음 그룹 3은 [작품 10, 17 : 마네(폴밭 위의 식사), 피카소(아비뇰의 처녀들)]이 묶였다. 두 작품은 시대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각기 주관적인 의미가 강하다.
- (4) 다음 그룹 4는 [작품 2, 5, 7 : 라오콘군상, 램브란트(야경), 앵그르(오달리스크) : 작품들 간의 주관성이 강한 공통점으로 작가들의 상황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시대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다.
- (5) 다음 그룹 5는 [작품 13, 18, 15 : 고흐(별이 빛나는 밤), 달리(Persistence of Memory), 뭉크(절규) : 시대적 공통점이 있으며, 주관성이 강한 작품들로 상징성은 있으나 의미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
- (6) 위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 1, 4, 6, 9 : 알파미라 동굴벽화, 파리의 심판, 나폴레옹 대관식,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현재 그룹과 친밀도가 떨어져 묶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예술작품'은 우리가 이미 행한 객체의 지각에 직접 현존하지는 않으나, 지각(知覺)의 구조임에는 틀림없는 그 무엇을 드러낸다. 시대적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으나 많은 작품은 시대를 무시하여 묶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친밀도의 근거는 예술을 전공한 전문가 이상들의 그룹에서 도출된 감상에 의한 결과이나, 감상자가 바뀌면 새로운 결과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에 근거한 해석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감상한 점수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작품의 새로운 해석(공통점)을 찾으려는 목표로 시도하였다.

제 V 장 결 론

예술작품은 그 작가와 사회, 사상 등 종합적인 문화의 표현이므로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분석함으로써 예술작품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감상자는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방법들을 통해 그 작품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의미들 속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서로 다른 시각에 따라 어떻게 읽혀지는지, 그리고 읽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작품을 통해 깨달아 나가는 것은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예술작품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우리의 방법은 예술작품에 대해 객관화하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방법이 시대적인 해석과 감상자의 주관적인 해석 위주였다면, 본 논문은 예술품을 보는 주요한 범주를 선택하여, 한 작품을 여러 감상자들이 다양한 범주로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여, 다양한 범주가 다양한 감상자와 조합하여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작품들 간의 친밀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예술품의 객관화와 수치화의 기여에 있다. 지금까지 객관화하지 못했던 예술 영역도 보편화 및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시도를 보였다. 또한 친밀도에 의한 시대를 초월한 예술품을 묶는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해석 하에 알 수 없었던 작가의 숨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새로운 해석으로 앞으로 예술작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추후 연구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예술작품의 다차원 해석과 객관화를 위해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범주 선정에 대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며, 예술품 해석에 있어 보다 많은 전문가 집단의 작품 수치화에 참여하여 새로 얻은 결과로 실증적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작품선정 시에 시대별, 장르별, 지역별에 따라 구체화된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시도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시도인 만큼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Matejka, L & Titunik, I.R, 『Semiotics of Art』, 1976
- [2] Beardsley, 『Language of Art and Art Criticism』, 1987
- [3] Jack Burnham, 『The Structure of Art』, New York, 1973
- [4] F.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ris, 1960
- [5] 노먼 브라이슨 외, 김윤희, 양은희 역, 『기호학과 시각예술』, 시각과 언어, 1995
- [6] 롤랑바르뜨, 김인식 편역, 『이미지와글쓰기』, 세계사, 1994
- [7] 움베르토 에코,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3
- [8] Laurie Schneider Adams, 『The Methodologies of Art』, Westview Press, USA, 1996
- [9] 아도르노,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9
- [10] A. 리샤르, 『미술비평의 역사』, 열화당, 1995
- [11] E. H. 콰브리치, 『서양미술사』, 열화당, 1977
- [12] ELLEN WINNER, 이모영, 이재근 역, 『예술심리학』, 학지사, 2004
- [13]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2000
- [14] 네이던 노블러, 『미술의 이해』, 도서출판 예경, 1993
- [15] 니코스 스탠고스, 성완경 외 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 [16] 로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3
- [17] 수잔 K, 랭거, 이승훈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5, pp.126
- [18] 김형진, 『문화예술의 퓨전적 해석』, 도서출판 한숨미디어, 2003
- [19] 미술사연구회, 『미술사연구 제2호』, 1988
- [20]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 [21] 전경수, 김리나 역, 『미술품의 분석과 서술의 기초』, 시공사, 1995
- [22] 진중권, 『미학오디세이 1, 2』, 새길, 1994
- [23] 최승규, 『서양미술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6
- [24]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2 문화정책 논총 제14집』, 2002
- [25] Andre Richard, 『La Critique D'Art』 1997,
- [26] Susanne K. Langer, 박용숙 역, 『Problems of Art』, 문예출판사, 1999
- [27] Udo Kultermann, 김문환 역, 『예술이론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
- [28] 가와노 히로시, 진중권 역, 『예술. 기호. 정보』, 새길, 1992
- [29] 해리스 K, 오병남/최연희 역,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1988
- [30] 하르트만 N, 전원배 역, 『미학』, 을유문화사, 1997
- [31] 팔머 R. E.,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 [32] 프로이트 S., 김영종역, 『프로이트의 예술 미학 분석』, 글벗사, 1995
- [33] 에코 U. 조형준 역, 『열린 예술작품』, 새물결, 1995
- [34] 비어슬리 M. C., 이성훈/안원현 역, 『미학사』, 이론과 실천, 1987